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1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천 원
2023년 주거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급지·가구별 16만 4천 원~ 62만 6천 원 수준
2023년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After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기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 4천 원 (+21만 3천 원)
2024년 주거급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급지·가구별 17만 8천 원~ 64만 6천 원 수준(+1만 1천 원~2만 7천 원)
2024년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8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등 상담·신고 번호가 분산되어 안내되었습니다.



After

이제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가 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109'로 바꿉니다.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89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0세반 정원 3명, 현원 2명 가정〉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지원

After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0세반 정원 3명, 현원 2명 가정〉

(원칙) 현원 아동당 지원

(추가) 영아반 인센티브 도입

부모보육료 2명분 + 기관보육료 2명분
+ 인센티브(기관보육료) 1명분

4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After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5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3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종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4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 ~ 300만 원



After

앞으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 ~ 450만 원



7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5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잠정)

Before

그동안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After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8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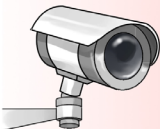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는 다소 제약이 있었습니다.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구입



· 임대비의 20%

Aft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인정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구입

· 임대비의 40%로 확대

9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7

안전동행 지원사업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21년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명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기간	'21년 ~ '23년(3년간)
지원조건	소요비용의 50% (최대 7천만 원~1억 원)
지원대상	(위험기계 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노후 안전검사기계 6종 (위험공정 개선) 부리산업, 제조업 기업·추락 고위험 3대 업종

After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위험공정 개선 중심의
안전동행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합니다.

사업명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기간	'24년 ~ '29년(6년간)
지원조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소요비용의 50%(최대 1억 원)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소요비용의 40%(최대 8천만 원)
지원대상	(대·중소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 제조업 중 부리공장,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사외 하청사업장

10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08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Before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이 건축법령과
상이하여 두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령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까지 수평거리 50m 이하
건축법령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보행거리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 보행거리 5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자동식 소화설비+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장 보행거리 75m 이하
	무인화 공장 보행거리 100m 이하

After

앞으로는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0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시행일: 2024년 5월

우리나라 주도의 최초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출범

아프라스

식품 안전 분야 국제협력

(연대 강화, 수출지원)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외국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규제장벽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해소,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 등을 통해 수출지원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 세계 최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되어 내년
5월 서울에서 각국의 규제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아프라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1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Before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해 마약류 상담을 전담하는
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23.9.27.부터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After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운영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2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청소년 · 취약계층 등 전문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교육이 확대됩니다.

마약과 끝낼 신호, SOS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143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접수시작일: 2024년 5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의료기기 업체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